

직업정보제공방식의 차이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인지복잡성의 증대효과

The Effect of Occupational Information on the Cognitive Complexity of Adolescents

이 옥*
Lee, Yok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occupational information on vocational cognitive complexity was conducted with 331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ninth grade. There were 2 experimental groups and 1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I was given only occupational information sheets (written form information) while group II was given occupational information through verbal instruction in addition to the occupational information sheets. A modified form of the cognitive complexity grid originally developed by Bodden (1970) was utilized to collect data on the subjects' vocational cognitive complexity.

ANOVA and Scheffé test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group II and the other groups in vocational cognitive complexity. The cognitive complexity level of experimental group I and the control group for the most aspired occup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for the least aspired occupation. However, the cognitive complexity level of experimental group II for the most aspired occupation was higher than for the least aspired occup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just giving occupational information to adolescents may not be effective and giving occupational information may be effective only when the method of giving occupational information is active enough to induce adolescents' self-confirming cognitive process.

I. 문제의 제기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직업은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대인에게 직업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며 일정 사회내 개인의 위치를 표시한다. 직업은 개인의 심리적 만족이나 불만의 요인이기도 하고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지요소로서 직업이 기여하는 역할을 감안한다

면 직업발달 영역은 인간발달의 제영역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주제인 것이다. 또한 산업화 이후 직업세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하면서 국가경제와 인력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인의 직업선택 문제는 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 운영의 실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됨으로써 개인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 및 직업조건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덕성여자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직업에 관한 지도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이후의 발달단계마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되는 것이 사실이지만(Herr, 1979; 김충기, 1989) 현재와 미래의 자신을 연결하여 자기정체를 파악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야 말로 진로지도와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보편적으로 설명해주는 '미래의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은 실제로 청소년들이 장래에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에 진로문제를 다루는 것은 가장 실제적이면서 포괄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나 상담의 내용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알려주고 양자간의 적절한 연결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통적 진로지도 방식에 대하여 직업발달 심리학자들(Super, 1957; Crites, 1981)의 회의적인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로선택을 앞두고 미래의 직업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직업세계에 비해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가 적은 상태에서 체계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청소년들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높혀 미래의 삶과 직업을 연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직업선택에 앞서 자신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도움으로써 당연히 청소년들의 직

업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따라서 직업정보의 제공은 각종 진로지도의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청소년들에게 제공된 직업정보가 그들에게 진정한 자기확인(Self-confirming)의 지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Bodden과 James(1976)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한 결과 그들의 직업인지에 긍정적 효과가 없었음을 제시하였다. Bodden과 James는 Kelly의 개인구성이론(Personal Construct Theory)에 근거한 인지적 복잡성 개념을 직업에 관한 정보처리 변수로 적용시켜 직업정보를 피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간접할 수 있는지 경험적 연구로 확인하려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대학생들을 피험자로한 그들의 연구에서 직업정보의 제공은 직업인지복잡성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정보가 직업인지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는 직업인지 복잡성 변수가 직업선택의 적절성요인과 관계있다는 선행연구(Bodden, 1970)때문에 특히 주목하게 된다. 청소년기 한국의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이 옥, 1987)에서도 직업인지 복잡성 변수는 직업에 관한 성별 고정관념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여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지특성요인이었으나 직업정보에 대한 탐색행동과 직업인지복잡성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직업정보의 역할에 대하여 회의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최소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직업정보가 피험자에게 제공된 방법의 문제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피험자의 연령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업정보의 제공방법이 단순히 직업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직업안내문'의

형식으로 대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직업정보 탐색행동이었을 뿐, 그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정보제공 환경이 주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시말하면 직업정보가 피험자의 기존지식 수준에서 피험자 개인의 의식적 확인과정이 없이 직업정보가 단순히 개인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피험자의 직업인지 복잡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체계적인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방법이 아닌 개인적인 정보탐색이나 진로지도의 형식적 관행으로 직업안내문안을 제공한다거나 직업정보의 출처를 가르쳐주는 식의 진로지도가 그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을 피험자로 택한 것은 이들이 이미 직업에 관한 탐색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직업정보에 대한 요구에서 이들보다 어린 연령층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피험자의 직업정보에 대한 요구수준이나 피험자의 직업에 대한 기존지식 소유에 따른 직업정보 제공효과의 차이를 가정할 수 있게한다. 여기에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직업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의 연령을 달리하면 직업정보의 제공이 피험자의 직업인지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직업정보와 진로지도

진로지도와 상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정보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직업정보의 역할 규정과 직업정보의 출처, 그리고 직업정보의 성격과 형태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정보의 역할은 진로탐색과 준

비단계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Ball(1984)은 직업정보가 직업선택 과정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을 이미 선택한 이후의 적응과정에도 도움을 주어 이후 개인의 직업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 직업정보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Jepsen과 Dillery(1974)는 한 개인의 훌륭한 직업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그 개인에게 적절하고 의미있는 직업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직업정보 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 학생들의 적절한 직업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업발달에 있어서의 직업정보의 역할인식으로 진로지도의 실제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과 차원의 직업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직업정보의 성격과 형태 및 정보의 출처별로 정보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연구들(Ball, 1984; Herr & Cramer, 1979)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들 가운데서 특히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직업정보는 해당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 및 능력, 작업의 내용과 성격, 작업현장의 인적, 물리적 환경과 행정체계, 승진·승급의 전망, 소득, 해당직업이나 사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해당직업 종사자의 삶의 형태에 관한 정보들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Hoppock(1976)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직업에 관한 정보는 직업정보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와 해당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효와 분포, 해당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진로지도의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직업정보를 획득 또는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체계적인 연구들(Ball, 1984; Herr 등, 1979; Hop-pock, 1976)이 있었다. 이들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가장 직접적인 것로부터 간접적인 방법까지 다양하다. 주요 방법으로는 실제 직업에 참여해보도록 하는 방법, 작업환경의 방문과 해당직업종사자와의 면접을 통한 정보를 얻는 방법, 직업정보 교재를 병행한 학습, 출판물, 예컨대 책이나 직업에 관한 안내문, 직업안내 기사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 직업에 관한 TV 프로그램이나 필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직업정보를 얻는 방법 등이다.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해당 직업에 직접 참여하여 일해보는 경험을 통한 정보획득 방법이나, 필름을 통한 직업정보획득 방법(Jones와 Krumboltz, 1970), 직업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James와 Bodden, 1976) 등이 사용되었는데 Jones와 Krumboltz의 연구에 의하면 간접적인 방법에 비해서 능동적인 활동과 직접경험을 통한 방법이 피험자의 직업발달에 효과적이었다.

2. 인지복잡성과 직업인지복잡성

인지복잡성은 Kelly(1955)의 개인 구성 이론을 근거한 개념이다. Kelly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상(事象)들을 개인적인 구성체계에 입각하여 지각하고 예측한다. 여기서 구성체계란 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일정양식으로 범주화하는 방식을 설명해주는 개념으로, Kelly는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구성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elly(1955)와 Bieri(1955)는 개인의 특정 대상에 대한 구성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지적 분별 정도를 인지복잡성/단순성 (Cognitive Complexity/Simplicity)의 차원으로 나타내었다. 인지복잡성/단순성은 특정 대상에 관하여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릴 때 정보속의 개념

들을 독립적으로 많이 또는 적게 고려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Vannoy(1965)의 설명에 의하면 인지복잡성이 큰 사람은 자극정보들 간의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지복잡성이 작은 사람보다 적절하고 융통성있는 반응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Bieri(1955)는 인지복잡성 정도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실험연구로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인지복잡성이 보다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Bodden(1970)은 직업정보에 대한 정보처리변수로 직업인지복잡성을 정의하였다. 그는 인지복잡성이 큰 사람은 일정 직업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잘 분별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에 잘 부합되는 직업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여 직업인지복잡성과 직업선택의 적절성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Lawlis와 Crawford(1975)는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전통적 관념상 비여성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직업인지복잡성이 전형적인 여성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직업인지복잡성에 비하여 큰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직업인지복잡성은 직업 선택의 적절성, 융통성과 관계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3. 직업인지복잡성의 통제요인

직업발달에 있어서 직업인지복잡성요인의 긍정적 역할을 제시한 연구결과로 인하여 차후 직업인지복잡성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한다면 진로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Hasse, Reed와 Winer(1979)는 대학생들에게 제공된 직업정보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직업인지복잡성에 차

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특정 직업의 장점만을 정보로 제공한 경우, 단점만을 제공하거나 장·단점을 혼합시켜서 제공한 경우보다 그 직업에 대한 인지복잡성이 작은 것을 발견하였다. Bodden과 James(1976)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직업안내문’ 형식으로 실험집단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결과 통제집단과 비교해 직업인지복잡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두 연구는 결국 개인의 직업에 대한 인지적 분별정도가 특정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정의적 인상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직업의 장점만을 정보로 제공하기 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소극적으로 직업정보에 청년들을 노출시키는 방법만으로는 그들의 직업에 대한 분별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음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호감여부가 직업인지복잡성변수와 관계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연구문제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직업정보의 제공조건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인지복잡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청소년의 성별 직업인지복잡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직업에 대한 선호요인은 청소년의 직업인지복잡성과 관계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특별시 강남구 소재 남녀공학인 S중학교

3학년 남녀학생 331명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로 정하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정한 것은 이들의 연령이 청소년기에 해당되면서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이었던 대학생들과는 직업발달 단계상 뚜렷이 구별될 뿐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모색을 해야할 단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3학년 11개반 가운데 임의로 남녀 각 3학급씩 6개 학급을 선정하여 해당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조사 또는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남녀 각 3학급은 하나의 통제집단 학급과 두개의 실험집단 학급(실험집단 I, 실험집단 II)으로 임의 지정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반응이 없도록 주의시킨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학생 164명, 여학생 167명, 총 331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전부가 분석되었다.

<표 1> 직업정보제공조건별·성별·연구대상자의 수

	남	여	계
통제 집단	55	54	109
실험집단 I	55	57	112
실험집단 II	54	56	110
계	164	167	331

2. 측정 및 실험도구

1) 직업인지복잡성

본연구에서 사용한 직업인지복잡성 척도는 Bodden(1970)의 직업인지복잡성 척도(Vocational Cognitive Complexity Grid)를 우리나라의 직업적 현실에 맞도록 연구자가 일부를 수정하고 청

소년들이 응답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원래 Bodden(1970)과 Hasse, Reed와 Winer(1979)가 사용한 척도는 Kelly의 Role Construct Repertory Grid척도를 Bieri가 수정한 것을 참고로 구성된 것이다. 이 척도는 12개 직업에 대한 인지복잡성 척도로서, 각각의 직업에 대하여 6점 척도로 응답자가 12개 항목의 구성개념별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12개의 직업은 Holland(1959)가 제시한 6개의 성격유형별 직업군중에서 골고루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다. 즉,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12개 직업과 12개의 구성개념으로 구성된 척도는 1주간격 재검사 신뢰도가 .61이었다. 그리하여 직업의 수효를 8개로, 구성개념의 수효를 10개로 조정할 결과 1주간격 재검사 신뢰도가 .84($p < .001$)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 옥, 1987)의 직업인지 복잡성척도의 신뢰도(.81) 및 Bodden이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8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8개의 직업과 10개의 구성개념은 예비조사결과 재검사 신뢰도가 큰 순서로 선정되었다. 결국, 본연구의 직업인지복잡성 척도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직업은 전기기술자, 공립중학교 교사, 외과 의사, 변호사, 대기업의 사무직 근로자, 물리학자, 사회복지사 및 의류디자이너이다. 그리고 10개의 구성개념은 직업의 소득정도, 해당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 일의 독창성, 흥미정도, 직업의 안정성, 직업의 명성 또는 평판, 직업이 지닌 특권,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점, 자율성(간섭없이 자유로운 정도), 그리고 일에 사교력이 요구되는 정도이다.

응답자 개인의 직업인지복잡성 점수는 8개의 직업별 인지복잡성 점수의 평균값이다. 한 직업

에 대한 인지복잡성 점수는 응답자가 하나의 구성개념에 대해 6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다른 9개의 구성개념들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와 비교하여 일치된 점수를 주었을 때마다 1점씩 가산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한 직업에 대해 10개의 구성개념 전체에 동일한 평가를 한다면 직업인지 복잡성점수는 45가 된다. 이 점수는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인지복잡성이 작은 것, 즉 인지적 단순성을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인지복잡성이 큰 것을 나타낸다.

2) 직업정보

선행된 관련연구에서 피험자에게 제공된 직업정보는 직업에 관한 문헌들(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과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을 참고하여 해당직업에 대한 특성을 요약한 직업안내문이었다. 본연구에서는 8개 직업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동부 간행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서(1989)'와 동아세계대백과사전을 참고하여 직업정보를 요약한 후, 보다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8개 직업 종사자들을 전화면접하여 정보를 보충하였다. 면접에 응한 직업종사자는 직업별로 두명씩이었으며 연령층과 관계없이 해당직업에 3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면접의 내용은 10개의 구성개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수집된 직업별 정보를 요약하여 '직업안내문'을 작성하였다. 단, 본 연구를 위해 마련한 8개 직업의 안내문은 완전한 정보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보를 요약한 것 뿐이다.

3. 실험 및 자료수집 절차

1) 실험

실험집단 I에 지정된 학급의 학생들에게 담임 교사의 양해아래 연구자가 직업안내문을 직접 배부하였다. 직업안내문을 나누어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참고로 읽어보라고만 말해 주었고 질문에는 그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실험집단 II에 지정된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실험집단 I의 학생들에게 직업안내문을 배부한 날과 같은 날에 직업안내문을 배부하고 즉시 연구자가 직접 안내문을 읽으면서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설명시간은 여학생 학급의 경우 20분 정도, 남학생 학급에서는 질문이 있었으므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직업안내문의 내용에 한정하여 대답해주었다.

2) 자료수집

실험집단 I II의 학급에 대해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2주후에 연구대상자 전체에 대해 직업인지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표를 이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조사표의 앞 부분에서는 8개 직업가운데 학생 자신이 장래의 직업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직업을 한가지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는 그반대로 가장 관심이 적은 직업을 하

지만 표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자료는 1990년 11월 5일과 11월 19일 사이에 수집되었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성별, 직업정보 제공조건별 직업인지복잡성 점수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고 두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3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차이가 유의할 경우에는 어느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Scheffé의 중다비교검증 방법으로 알아 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직업정보제공 및 성별요인과 직업인지복잡성

직업정보의 제공 조건 및 성별 요인에 따라 직업인지복잡성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직업정보를 제공받은 두 실험집단 및 통제 집단의 직업인지복잡성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직업인지복잡성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직업인지복잡성에 대한 직업정보제공조건 및 성별요인의 이원변량분석

변 량 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직업정보제공조건(A)	2	388.015	194.007	16.55**
성별(B)	1	9.830	9.830	0.84
A×B	2	153.214	72.607	6.54**
오 차	325	3808.869	11.719	
계	330	4359.929		

** p<.01

한편, 성별 요인과 직업정보제공 조건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의미있게 나타났다. 성별요인과 직업정보제공 조건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유의적으로 나타내게하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정

보제공 조건별 남녀의 직업인지복잡성 차이를 t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집단 II에서 남녀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3> 직업정보제공조건별 남녀의 직업인지복잡성 차이에 대한 t-검증

	남		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통제 집단	12.71	2.95	12.78	2.66	0.13
실험집단 I	13.94	4.86	12.80	3.86	1.37
실험집단 II	9.73	2.10	11.88	3.32	4.03**

** p<.01

이것은 직업정보를 직업안내문과 병행하여 직접 설명을 해준 집단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이유의 설명으로, 실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학생 학급과는 달리 남학생 학급에서 보여준 직업정보에 대한 질문등을 감안해 볼 때 남학생들의 직업정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생긴 학습의 효과를 가정할 수 있겠다. 그밖에도 척도에 제시된 8개의 직업들이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하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업정보제공 조건별 직업인지복잡성 점수의 차이가 어느 집단간에 유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중다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직업정보를 직업안내문 형식으로만 제공받은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직업정보를 직업안내문과 함께 구두로 설명을 들은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직업인지복잡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정보를 안내책자로 배부하는 형식과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는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별력이 그리 큰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Boddens등(1976)의 선행연구와 거의 일치된 결과이다. 또한 적극적인 구두 설명이 학생들의 직업에 관한 분별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표 4> 직업정보제공 조건별 직업인지복잡성점수의 Scheffé 중다 비교검증

	평균	Scheffé
통제 집단	12.75	a
실험 집단 I	13.36	a
실험 집단 II	10.82	b

p <.05 F=16.55

2. 선호직업 요인과 직업인지복잡성

직업에 대한 선호요인과 직업인지복잡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남녀·직업정보제공 조건별 직업인지복잡성 점수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

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통제집단과 실험 집단 I에서는 남녀 모두 선호직업에 대한 인지

복잡성 점수가 가장 관심이 적은 직업에 대한 인지복잡성 점수에 비하여 낮았다.

<표 5> 선호직업요인별 직업인지복잡성 점수차에 대한 t-검증

성 별	직업정보제공조건별	선호직업	비선호직업	표준오차	t
남	통제 집단	16.690	13.836	0.766	3.72**
	실험 집단 I	17.472	15.054	0.737	3.28**
	실험 집단 II	10.703	13.200	0.577	4.33**
여	통제 집단	15.018	12.351	0.610	4.37**
	실험 집단 I	16.894	13.298	0.871	4.13**
	실험 집단 II	13.767	15.351	0.653	2.38*

* p<.05 ** p<.01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직업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직업(선호직업)에 대한 인지적 단순성을 반영한 결과로써 이미 선호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구성개념들을 분별하여 직업을 평가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직업에 대해서 보다 낮음을 말한다. 또한 이것은 싫어하는 대상이나 중립적인 대상에 대해서보다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지적 단순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는 선행연구(Millen와 Bieri, 1965)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로, 직업에 대한 선호요인이 청소년의 인지복잡성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실험집단 II의 선호직업에 대한 인지복잡성 점수는 남녀 모두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뚜렷한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심이 적은 직업에 비해 선호직업에 대한 인지복잡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집단 II에 대한 직업정보제공 방법이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에 대한 인지적 분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선호직업에 대한 정보

요구가 큰 상태에서 직접설명과 같은 직업정보의 제공방법이 큰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선호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안내책자나 정보문안을 나누어주는 것만으로는 청소년의 직업인지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말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직업정보의 제공조건은 청소년의 직업인지복잡성에 관여하는 변수이되 소극적인 직업정보제공 방법은 특정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분별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직업인지복잡성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없다. 그러나 특정 직업에 대한 성별 관심의 차이는 직업인지에 대한 성별 정보제공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호직업에 대한 직업인지복잡성은 관심이 적은 비선호직업에 비해 오히려 낮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식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면 선호직업에 대한 인지적 분별력은 증가할 수 있다.

넷째, 선행연구의 실험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직업정보 제공이 그들의 직업인지복잡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피험자가 진로 탐색이 꽤 진행된 대학생들이었다는 데 이유가 있기보다는 정보제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와 상담에 적용시킨다면, 청소년을 위한 직업정보의 제공 효과는 직업에 관한 정보 제공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특히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나 상담의 실제에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거나 직업에 관한 안내책자 등을 상담실에 비치해두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키는데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직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진로지도나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 특히 국가경영과 지역사회여건을 고려한 직종별 정보와 직업세계 전반에 관한 정보의 체계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 재학생들의 선호직업요인별 직업인지복잡성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들의 장래 직업의식 발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들에게 특별한 직업정보제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호직업에 대한 인지적 분별정도가 낮은 정도에서 특정 직업을 막연하게 미래의 직업으로 기대하거나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호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의 기회가 청소년기 이전부터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선호직업에 대한 인지적 분별력이 무관심한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선호직업이 결정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객관적인 직업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의 선호직업 결정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참 고 문 헌

- 김충기(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 노동부(1989). 직종별 임금실태보고.
- 동아출판사(1988). 동아 원색 세계 대백과 사전.
- 이 옥(1987). 청소년기 여학생의 비전통적 직업 선호 요인으로서의 직업정보의 탐색행동과 인지적 복잡성. 학생지도연구 7.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Ball, B. (1984). Career counselling in practice. Philadelphia: The Palmer Press.
- Bieri, J. (1955). Cognitive complexity-simplicity and predictive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263-268.
- Bodden, J. (1970). Cognitive complexity as a factor of appropriate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17, 364-368.

- Bodden, J. & James, L. (1976). Brief repor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3, 280-282.
- Crites, J. (1981). Career counselling model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Hasse, R., Reed, C. & Winer, J. (1979). Effect of positive, negative and mixed occupational information on cognitive and affective complex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5, 294-302.
- Herr, E. & Cramer, S. (1976). Career guidance through the life span: A systematic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 Hoppock, R. (1976). Occupational information. New York: Norton.
- Jepsen, D. & Dillery, J. (1974). Vocational decision-making model: A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4, 331-334.
- Jones, G. & Krumboltz, J. (1970). Stimulating vocational exploration through film-mediated problem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17, 107-114.
- Kelly, G.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 Lawlis, G. & Grawford, J. (1975). Cognitive differentiation in women and pioneer-traditional vocational choi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 263-267.
- Norris, W., Hatch, R., Engelikes, J. & Winborn, B. (1979). The career information service. Chicago: Rand McNally.
- Super, D.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per & Row.
- Vannoy, J. (1965). Generality of cognitive complexity-simplicity as a personality constru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385-396.